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용 쇼크 뒤의 반등: 기대 높아진 연준 금리 인하

- 주요 지수의 전반적 상승: 나스닥 2.0% ↑
- 고용 쇼크 속 저가 매수세 및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상승
- 민간 소비, 고용 둔화 속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지속

Summary

미국 증시는 급반등하며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0% 상승하여 21,053.58에 거래를 마쳤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4% 올라 44,173.64, S&P500지수는 1.47% 상승하여 6,329.94에 마감함. 이 같은 반등은 지난달 발표된 '7월 고용쇼크' 이후 투자자들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남.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극적으로 변동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노동통계국 국장을 경질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향후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함.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가 3.62%, 메타플랫폼이 3.51%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부문 실적 우려로 1.44% 하락함.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7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으며, 특히 운송 장비 주문이 22.4% 하락한 점이 두드러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은 다수 국가에 10~41%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 무역 및 경제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함. (다우 +1.34%, 나스닥 +1.95%, S&P500 +1.47%, 러셀2000 +2.10%)

특징종목

애플(+0.5%)은 팀 쿡 CEO의 발표에 따라 중국 관세 문제로 인한 아이폰과 맥 판매 급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기록함. 또한, 애플 카드의 결제 프로세서가 골드만 삭스에서 JP모건 체이스로 이동됨에 따라 코어카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아이덱스 래버러토리즈(+27%)는 애완동물 진단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연간 이익 및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 주가는 52주 최고치를 기록함. 마이크로소프트(+2.2%)는 애저의 성장 덕분에 주식 분석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주가 상승, AI 관련 지출을 확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윌리엄스-소노마(+6.9%)는 어려운 소매 환경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높은 매출 성장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마이크로스트래티지(+6.2%)는 최근 2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비트코인 구매를 완료,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이어짐. 조비 항공(+18%)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함. 이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여객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 계획 발표가 직접적인 원인임. 이러한 합병으로 첫 상업용 비행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뉴몬트(+4.5%)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초과하며 매출 호조를 기록하고, 배당금 인상 계획 발표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감. 리프트(+3.4%)는 바이두와의 로보택시 협력 발표로 상승세를 보여줌.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유럽 시장에서 확장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

반면, 아마존(-1.4%)은 오디오 사업 재편성 일환으로 약 100명의 원더리 팀 직원을 해고하면서 주가 하락을 겪음. 온 세미컨덕터(-15%)는 분기 실적 발표 후 CEO의 고객 신중 경고로 주가 하락하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함을 드러냄. 이처럼 각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외부 환경 변화가 주가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클리블랜드 클리프스(-3.5%)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관세 문제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함. 피그마(-27%)는 IPO 직후의 급등 후 투자자들의 매도 선호가 심화됨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0%로 세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의 고용 데이터 수정으로 노동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채권 수요가 증가한 결과임. 다른 주요 국가의 채권 금리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음. 특히, 터키와 브라질의 채권 금리는 각각 29.26%와 13.92%지만, 수익률은 약간의 조정만 있었음.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98.74로 하락하며 약세를 지속했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에 압박을 가했으며, 달러는 파운드와 호주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 반대로 유로와 엔에 대해서는 다소 강세였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0.2% 상승해 71.08 USD/Bbl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천연가스가 2.95 USD/MMBtu로 4.27% 하락해 에너지 상품 전반에서 혼조세가 나타났다. 금은 3373.39 USD/t.oz로 0.31% 상승했고, 은도 1.04% 상승했음. 곡물 시장에서는 대두가 968.50 USD/Bu로 0.70%, 밀은 516.50 USD/Bu로 0.05% 감소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